

Harlem Renaissance와 모더니즘*

千 勝 傑

(서울대학교 英文學科)

Ⅰ

미국 흑인문학의 모더니즘을 논할 때 우리는 두가지 시각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서구적 모더니즘의 시각이요 다른 하나는 모더니티의 개념을 흑인문학의 인종적 특수성에 연결시켜보는 시각이다. 미국문학의 경우 모더니즘은 1910년대 초 Ezra Pound가 주도한 이미지즘(Imagism)운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1920년대를 정점으로 193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적 모더니즘의 현상이 같은 시기의 미국 흑인문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흑인문학은 분명 미국문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 인종적(racial)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른바 미국문학의 「주류」(main stream)와는 다른 미국 흑인문학 나름의 특수한 배경과 전통을 이루어온 까닭이다.

미국 흑인문학의 경우 역시, 1910년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1920년대를 절정기로 1930년대 초반까지 그 변화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미국문학 전체의 경우와 일치하지만 그 변화의 성격과 특성이 서구적 모더니즘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 새로운 변화는 미국문학의 전반적인 모더니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고 Langston Hughes나 Jean Toomer처럼 표현형식과 기교의 실험성에 있어서 서구적 의미의 모더니스트의 특성을 고루 갖춘 흑인 작가들도 없지 않았지만 그 변화는 서구적 모더니즘 같은 그러한 어떤 특수한 양식의 문학 사조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것 또는 기성질서에의 항거와 새로운 것의 추구라는 모더니즘 정신이 흑인의 삶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모더니즘적 태도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흑인문학의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구적 및 백인 중심의 미국적 상황과는 다른 미국 흑인의 삶의 인종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더니즘의 정신이 어떻게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투사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정신이 20세기초 미국 흑인문학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The New Negro Movement” “The New Negro Renaissance,” 혹은 “Harlem Renaissance”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New Negro”라는 용어는 Alain Locke가 1925년에 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관한 새로운 흑인 작가들의 작품 모음집인 *The New Negro*라는 책의 제목에서 연유한 것이며 Harlem Renaissance는 새로운 의식의 흑인 예술 및 흑인 문학이 뉴욕시의 Harlem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된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New Negro”의 이름을 남게 된 *The New Negro*는 1925년 Allain Locke가 *Survey Graphic*誌의 Harlem 특집호를 편집했을 때의 자료를 모태로 하여 그전의 몇년 사이에 미국 흑인문학에 나타난 흑인들의 내적 및 외적 삶의 변화에 관한 중요한 기록들을 정리 편찬한 것이다.

한편 Harlem Renaissance¹⁾의 시기는 1차대전 이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로 다소 느슨하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자에 따라 짧게는 새로운 흑인문학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1920년대, 길게는 새로운 흑인 의식의 상징적 조직체인 NAACP(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가 결성된 1910년부터 2차대전이 시작되는, 그리고 다른 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Richard Wright의 *Native Son*이 출판된 1940년까지로 설정하며²⁾ 또는 몇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1917년부터 Harlem Riot가 폭발한 1935년까지로 이해하기도 한다. 1917년이 중요한 시점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이 해에 James Weldon Johnson의 노예해방 50년을 기념하는 頌詩(“Fiftieth Anniversary Ode”)를 수록한 *Fifty Years and Other Poems*가 출판되었고, 같은 해에 유능한 흑인 비평가 William Stanley Braithwaite가 Spingarn medal을 수상하면서 이 책의 출판이 흑인 작가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흑인 해방 운동의 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³⁾ 또 같은 해에 흑인의 린치행위에 항거하여 St. Louis Riot의 심각한 흑인 폭동이 일어났고 Claude McKay의 유명한 “Harlem Dancer”가 발표된 점,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흑인의 삶을 다룬 백인 작가 Ridgely Torrence의 흑인에 관한 세 희곡 *Gramy Maumee, The Rider of Dreams, Simon the Cyrenian*이 뉴욕에서 상연된 점이 고려된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191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 흑인의 내적 외적 삶의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종적 자각과 이상의 추구, 그리고 흑인 정신의 발견과 그 해방에의 욕구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백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여된 흑인의 삶의 관습적 질서와 전통에 대한 저항과 거부에서 비롯된 이 변화는 분명 모더니즘의 정신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더니즘의 정신이 미국 흑인의 삶의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1) 앞으로 Harlem Renaissance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며 HR로 줄여 쓸 것임.

2) Michael W. Peplow and Arthur P. Davis, eds., *The Negro Renaissance: An Ant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5), p. xx.

3) Ruth Miller, ed., *Backgrounds to Blackamerican Literature* (Scranton: Chandler Publishing Co., 1971), p. 165 참조.

II

HR을 가져온 원인과 그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는 일은 노예해방 이후 약 반세기의 미국 흑인의 역사 자체를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할만큼 HR은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의 상승작용으로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 아이러니컬하게도 흑인에 대한 백인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공민권 박탈, 교육·교통·공공시설 이용제한 등 여러가지의 흑인차별 정책과 Ku Klux Klan 등에 의하여 자행되는 가혹한 린치 등의 폭력으로 흑인들의 삶은 더욱 위축되고 피폐해짐으로써 1910년대 쯤에는 그러한 억압된 삶의 강요를 거부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으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 같다. minstrel show가 응변으로 보여주는, 백인들에 의하여 그들에게 강요된 인습적인 삶의 질서와 흑인 stereotype에 대한 반발은 이미 20세기 초에 Charles W. Chesnutt과 W.E.B. DuBois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강력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차대전중 흑인 자원부대인 NY 15 보병연대가 전쟁중에 당한 차별대우와 모욕⁴⁾, 종전후 흑인 귀향 군인들에 대한 폭행과 린치, 그러한 린치행위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St. Louis Riot 및 1919년의 May Day Riot 등 일련의 사건들은 백인의 절증하는 박해와 그에 대응하는 흑인들의 태도 변화를 잘 보여준다.

1890년대부터 시작되어 1920년대에 이르는 흑인 인구의 「대이동」(Great Migration) 또한 HR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당시 미국 흑인의 총인구 1,000여만 중에서 20%에 달하는 200만명이 남부에서 북부 또는 중서부로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그 인구 이동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부도시로의 흑인 인구의 이동은 이민 규제와 함께(1924년에는 강력한 이민법이 제정됨) 노동력이 줄어들고 반면에 1차대전 후 미국의 산업팽창으로 노동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싼 노동력(cheap labor)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는데 도시로의 이 인구 이동은 N.I. Huggins의 지적처럼⁵⁾ 농촌의 단순하고 동질적인 삶에서 도시의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Alain Locke와 Robert Bone이 각각 시사하고 있듯이⁶⁾ 이 이동은 남부에서 북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일 뿐 아니라 『중세의(medieval) 미국에서 현대의(modern) 미국으로』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흑인들의 새로운 인종적 자각에 크게 기여했음에 틀림없다.

4) Nathan Irvin Huggins, *Harlem Renaissan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 54 참조.

5) *Ibid.*, p. 57.

6) Alain Locke, ed., *The New Negro* (New York: Atheneum, 1977), p. 6. and Robert Bone, *The Negro Novel in America* (New Haven: University Press, 1965), p. 53.

이 흑인의 대이동과 관련하여 Harlem 같은 대도시에서 이루어진 ghetto의 공동체 생활이 HR을 가속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남부의 농촌 생활에서는 흑인들간의 유대의식이 같은 조건 밑에서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비교적 단순하고 다분히 추상적인 차원의 것이었던데 반해 도시 ghetto의 공동생활에서의 그들의 유대의식은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경험에 기초한 구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 생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공동체 생활은 전체 성원의 생활수준 향상과 교육 기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 존중과 독립의 새로운 태도』를 기르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 경험은 그것을 해석할 새로운 문학 운동을 요구』함으로써 지식인 계층을 만들어냈다는 Bone의 설명은⁷⁾ 매우 타당하다.

HR을 촉진한 또 다른 원인은 보다 급진적인 조직적 흑인 운동의 확산이다. 짐승하는 런치행위와 흑인차별에 분노를 느끼고 Booker T. Washington 같은 흑인 지도자의 소극적인 「점진주의」(gradualism)에 좌절을 느낀 W.E.B. DuBois를 주축으로한 29명의 젊은 흑인 지식인들이 1905년 Niagara Falls에 모여 흑인의 완전한 시민권을 요구한 Niagara Movement⁸⁾은 이러한 운동의 기폭제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임에서 DuBois는 적극적 행동을 위한 조직체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즉각적인 흑인 남자의 참정권, 공공시설 이용의 흑인차별 철폐, 미국 헌법의 준수, 흑인들의 교육 받을 권리 등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특히 급진적인 젊은 지식층의 지지를 받았으며 1910년에는 다른 흑인 및 백인 집단과 結紐하여 NAACP를 결성하게 된다. 1908년의 Springfield(Illinois주) 흑인 폭동을 계기로 흑인의 인종과 지위 향상의 필요성을 절감한 흑백 자유주의자들이 가담한 NAACP의 결성에는 William Dean Howells, John Dewey 등의 백인 지식인들도 발기인으로 참가하였으며 특히 흑인의 시민권, 균등한 교육 기회, 흑백의 평등을 위한 법적 투쟁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흑인들의 인종적 자각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흑인들의 삶의 개선과 지위 향상에 NAACP 못지 않게 기여한 단체는 NUL(National Urban League)이다. NAACP보다 1년 늦게 1911년 National League on Urban Conditions Among Negroes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이 단체는 특히 도시와 산업지대로 밀려드는 흑인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삼았지만 후에는 흑인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인종의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범소수민족 지위 향상 운동으로 그 목적을 확대해 갔다. NAACP와 NUL이 미국인으로서의 흑인의 정체성과 지위 향상의 문제에 관심을 쏟았다면 Marcus Garvey가 주도하여 1914년 창설한 UNIA(Universal Negro Improvement Association)는 범세계적 안목에서 흑인 문제에 접근했으며 「Back to Africa」를 모토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창하는 과격한 민족주의 노선을 택했다. Garvey의 이러한 과격한 민족주의적 계획은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흑인의 민족적 자긍심과 민족적 목

7) Robert Bone, p. 54.

8) *Family Encyclopedia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The Reader's Digest Association, Inc., 1975), p. 800.

적 의식을 고양한 점에서는 그 나름의 성공을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의 흑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과 병행된 언론의 역할 또한 HR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NAACP의 기관지인 *The Crisis*는 1910년 NAACP의 결성과 함께 DuBois를 편집인으로 창간되어 흑인에 대한 폭력 린치 행위, 흑인폭동 사건, 흑인에 관한 부당한 행위나 추문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흑인문제의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Langston Hughes의 유명한 시 “The Negro Speaks of Rivers” 등 흑인 작가의 문학 작품을 게재하여 문학운동으로서의 HR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NUL의 기관지인 *Opportunity* 역시 흑인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The Crisis* 보다 더 온건하고 학구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특히 흑인문학의 현상모집을 통하여 1925년에는 L. Hughes의 “The Weary Blues”를 일등 당선작으로 발표하는 등 Hughes, Arna Bontemps, Jessie Fauset 등을 배출함으로써 HR을 활성화하는데 큰 몫을 했다. 또한 1917년 A. Philip Randolph와 Chandler Owen이 창간한 *The Messenger*도 *The Crisis*나 *Opportunity*와 함께 미국 흑인들의 새로운 의식 변화에 기여한 바 적지 않으며 UNIA의 기관지인 *New World* 역시 흑인의 정체성 확인과 민족적 자긍심 고취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HR의 원인과 배경은 위에 열거한 흑인의 특수한 상황이나 흑인운동 단체와 흑인 언론의 활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HR은 분명 하나의 미국적 현상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흑인의 삶과 흑인의 문화에 대한 백인작가들의 관심 또한 HR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Ridgeby Torrence의 세 희곡, Eugene O'Neill의 *Emperor Jones*(1920)와 *All God's Chillun Got Wings*(1923), Sherwood Anderson의 *Dark Laughter*(1925), DuBose Heyward의 *Porgy*(1925), Carl Van Vechten의 *Nigger Heaven*(1926) 등은 모두 흑인의 삶을 소재로 흑인의 주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Carl Van Vechten은 Harlem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문학,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예술 활동 뿐만 아니라 흑인 작가 지식인들과의 밀접한 교류,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통하여 흑인의 문학과 예술 및 Harlem의 생활을 백인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바 있다.

Van Vechten의 행적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백인들 사이에 확산되어간 당시의 「흑인유행」(Negro vogue) 또한 HR에 활기를 불어넣은 중요한 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Jazz Age’⁹⁾로 불리는 1920년대의 Harlem은 일차대전 이후 전쟁의 불안과 공포와 환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위안을 갈구하던, 그리고 전후의 물질주의적 상업주의적 속물근성에 식상했던 백인들 특히 젊은 지식인층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적절한, 술과 춤과 섹스가 확보된 쾌락 추구의 메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Harlem은 이들에게 부도덕한 쾌락의 상

9) 1920년대에 유행했던 Jazz나 Charleston이 모두 흑인의 음악과 흑인의 춤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정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191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차대전 이후 미국에 다소 왜곡되어 널리 알려진 Freud의 심리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sex)과 원시성(primitivism)을 건강한 활력으로 정당화시켜주었고 Harlem은 바로 이러한 건강한 섹스와 원시성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흑인들의 열등함이나 미개함의 척도로 생각되던 성본능, 원시성, 놀이추구의 게으름 등이 오히려 흑인들의 덕목으로 치부되어 「흑인유행」을 유발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검토해 본대로 HR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 흑인의 삶에 일어난 여러가지 복합적인 새로운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각성의 필연적인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결실의 주요 성격과 특성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 보기로 하겠다.

III

앞의 배경 설명에서도 암시되었듯이 HR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흑인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발견일 것이다. HR의 흑인 작가들은 백인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흑인 상투형(Stereotype)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백인동화주의(assimilation)의 태도를 거부하고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으려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 물론 Martin Delany 등으로 비롯되는 흑인 민족주의(black nationalism)나 Charles W. Chesnutt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향변의 전통은 흑인문학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었지만 그러한 전통은 지나치게 전투적이거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흑인의 인종적 열등감을 그 밑에 깔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전의 흑인 작가들과 구분되는 HR 작가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흑인의 삶 또는 흑인적인 것을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들의 긍정적이고 때로는 심미적이기까지 한 그 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부정과 극복의 대상처럼 여겨졌던 흑인의 삶 자체를 진솔하게 묘사하고 그 삶에서 긍정적 요소와 아름다움을 찾으려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발견의 자세가 흑인 존재의 뿌리 찾기로 이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추적해야 할, 그들의 현재를 과거와 의미있게 연결시켜줄 흑인 유산, 그 문학적 뿌리를 노예생활로 집약되는 미국에서의 그들의 굴욕적인 삶의 역사에서 찾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결국 눈길을 돌린 곳은 그들의 모국인 아프리카였던 것이다. HR의 두드러진 특성이 이 아프리카 근원에 대한 향수와 탐색, 흑인 민속문화와 원시성(primitivism)에 대한 깊은 관심과 예찬, 그리고 흑인의 인종적 자긍심의 강력한 표출임은 이러한 맥락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Huggins도 지적하듯이 아프리카에 대한 탐색에 치중한 나머지 미국에서의 『실제 과거』(actual past)를 소홀히 한 것, 그리고 『막연하고 먼 반신화의 세계』(something

which was vague, distant, half myth)를 위해 『즉접적이고 직접적인 가시적 현실세계』(that which was immediate, personal, and discernible)를 결과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 아프리카적 원시성 추구의 최대의 아이러니¹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아프리카적 근원의 탐색은 HR 문학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HR의 또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이렇듯 흑인의 인종적 정체성과 인종적 전통의 보전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인으로서의 흑인의 역할과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HR의 작가들은 아프리카적 근원에 대한 향수에도 불구하고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원하기보다는 미국문화의 협조자와 참여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민으로서 미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The New Negro*의 권두언적인 Locke의 “*The New Negro*”라는 글에 이미 잘 나타나 있다.

...It must be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the Negro has already made very substantial contributions, not only in his folk art, music especially, which has always found appreciation, but in larger, though humbler and less acknowledged ways. For generations the Negro has been the peasant matrix of that Section of America which has most undervalued him, and here he has contributed not only materially in labor and in social patience, but spiritually as well.... [The Negro] now becomes a conscious contributor and lays aside the status of a beneficiary and ward for that of a collaborator and participant in American civilization. The great social gain in this is the releasing of our talented group from the arid field of controversy and debate to the productive fields of creative expression. The especially cultural recognition they win should in turn prove the key to that revaluation of the Negro which must precede or accompany any considerable further betterment of race relationships.¹¹⁾

이러한 Americanism의 노력은 흑인의 인종적 정체성 추구의 열띤 상반되어 보이지만 이른바 W.E.B. DuBois가 정의한, 흑인이자 동시에 미국인이어야 하는 미국흑인의 이중 정체성, 그 「이중의식」(double consciousness)¹²⁾의 필연적 산물임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HR 작가들의 이러한 Americanism의 노력은 미국 흑인의 그 비극적 이중의식의 갈등과 투쟁의 엄청난 두께를 외면한, 미국흑인의 이중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안이하고 낙관적인 처방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더욱이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의 행간에 암시되고 있듯이 이러한 태도는 다분히 소수의 「재능있는 흑인 지식층」(talented group)의 권익을 알세운 엘리트 의식의 발현이라는 한계를 지니며 또한 흑인의 재평가나 흑백관계의 개선을 여전히 백인의 관점이나 기준에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0) Nathan Irvin Huggins, p. 189.

11) Alain Locke, ed., p. 15.

12) Booker T. Washington, W.E.B. DuBois, and James Weldon Johnson, *Three Negro Classics* (New York: Avon Books, 1965), p. 215 참조.

Locke 자신도 『인종적 가치 위에 Americanism을 세우려는 흑인의 노력』(attempt to build [the Negro's] Americanism on race values)의 성공은 흑인과 백인이 미국문화·인습·제도를 완전히 공유함으로써만이 가능함을 지적함으로써¹³⁾ 자신의 주장의 한계를 시인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HR의 세번째 중요한 특성 또한 이러한 흑인 Americanism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그 특성은 HR가 흑인 자체의 특수한 문화 현상이라기 보다는 미국문화 나아가 서구문화 자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른바 시대정신(Zeitgeist)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지배문화의 가치와 기존의 질서와의 순응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통 속에서, 혹은 그 전통의 재검을 통하여,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HR의 흑인작가들만이 아니라 당대의 백인 지식층에도 공통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젊은 백인 지식인의 그룹인 「길 잃은 세대」(lost gener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1차대전후 서구와 미국 사회에 밀어닥친 서구 문명에의 환멸, 기존의 권위체제에 대한 항거, 다분히 Freudianism의 영향에서 비롯된 인간의 본능적 원시성의 예찬, 그리고 예술과 문학에서의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향한 실험 등 당대의 시대정신을 요약해 보이는 문화적 변화들은 「길 잃은 세대」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바로 HR의 특성이기도 했고 그 변화들은 모더니즘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들의 예술 및 문학세계에 공통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었다. 물론 기법상의 변화에 있어서 이 시대의 흑인문학은 백인문학의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대성의 인식과 그 문학적 반영에 있어서 양자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HR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성은 아마도 문자 그대로의 「劃期的」(epoch-making)인 그 문학사적 의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흑인문학사상, 아니 미국문학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도, 한 특정 시기에 한 장소를 중심으로 공통된 인종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것처럼 많은 작가들이 왕성한 작품 활동을 벌였던 예는 없다.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동의 주제의식을 지닌 수십명의 흑인작가가 등단하여 David Littlejohn의 지적처럼 그 중의 『20여명이 문학적 성숙과 독립을 성취』한¹⁴⁾ 기록만으로도 HR의 문학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할 것이다. 20이라는 숫자는 1920년 이전까지 100여년의 미국 흑인문학의 역사에서 문학적 성숙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흑인작가들 전체를 합친 숫자를 훨씬 넘는다. HR 시기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그전까지의 미국 흑인문학의 질과 양의 수준에 비교해볼 때 실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HR의 또하나의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라면 그것은 인종적 정체성 추구와 인종적 자긍심의 예찬이라는 대체로 공통된 주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기법에서 드러낸 문학적 다양성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대체로 사회항변(social protest)과 흑인농장설화 전통(plantation tradition)으로 대표되는 그전까지의 흑인문학의 비교적 단조

13) Alain Locke, ed., p. 12.

14) David Littlejohn, *Black On Whit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p. 39.

로운 패턴과 비교해 볼 때 그 예술적 수준의 고하를 떠나서라도 매우 중요한 발전적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제 이러한 왕성한 창작활동의 결실과 문학적 다양성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에서 열거한 HR의 중요한 특성들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있는지 당대의 몇몇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IV

HR 시기에 발표된 많은 작품들은 그 질적 수준만이 아니라 다루는 내용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HR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보여줄 소수의 몇몇 대표 작가를 선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정성을 추구하는 Jazz Age의 백인 독자들이나 북부 흑인 브루크 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쓰여진 이류 작품들, 진솔한 삶의 갈등이나 사회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피부색 등 인종적 호기심을 소재로 한 감상적인 작품들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인종차별에의 항거, 인종적 자긍심, 아프리카적 근원에의 관심, 흑인의 민속적 삶, Harlem 등 도시 생활의 실상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룬 작품들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Claude McKay, Countée Cullen, Jean Toomer, Langston Hughes, Rudolph Fisher, Eric Walrond, Jessie Fauset, Nella Larson, Arna Bontemps, Zora Neale Hurston 등을 선정 대상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¹⁵⁾ 그러나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1920년대에 Harlem을 중심으로 주로 활약했고 「문학적 성숙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앞의 네 작가 McKay, Cullen, Toomer, Hughes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이들은 대부분 소설도 썼지만 앞으로 살펴볼 이들의 작품이 주로 詩작품인 것은 HR 시기의 소설은 시와는 달리 대체로 상업주의에 영합한 문학성 함량 미달의 것이 많다는 점과 역시 지면상의 제한을 고려한 것이다.

이 네 사람은 몇가지 점에서 서로 공통되는데 이 공통점은 HR의 성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네 작가는 HR의 선구적 역할을 한 W.E.B. DuBois와 James Weldon Johnson과 마찬가지로 모두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로서 이들의 교육적 배경은 HR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기도 한 문화적 엘리트즘의 성격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들은 작가에게 있어서의 예술적 통제 (artistic control)와 감정적 초탈 (emotional detach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줄곧 노력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들의 교육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는 이러한 노력은 그들의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는 데 주요한 밑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로 이들은 흑백 인종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많은 흑인 작가들의 경우처럼 투쟁적인 민족주의자나 온건한 동화주의자의 어느 한편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이중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다.

15) W.E.B. DuBois와 James Weldon Johnson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이중적 태도 혹은 이중 감각 또한 HR의 중요한 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Jamaica에서 출생하여 미국으로 이주해온 Claude McKay(1889~1948)의 경우 그의 성장 배경 자체가 이러한 이중 감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배경은 그로 하여금 더 객관적인 초연함을 가지고 그리고 더 정확하고 균형잡힌 눈으로 미국사회를 볼 수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McKay는 때로 Jamaica (나아가 Africa)에 대한 향수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을, 미국사회에서의 흑인의 소외감과 공허감을 읊기도 하지만, 때로 미국사회의 인종적 편견에 대하여 결연히 분노하기도 한다. “Harlem Dancer”와 “If We Must Die” 같은 시는 McKay의 이러한 다른 모습들을 각각 잘 형상화해 보이고 있는 작품들이다.

“The Harlem Dancer”

Applauding youths laughed with young prostitutes
 And watched her perfect, half-clothed body sway;
 Her voice was like the sound of blended flutes
 Blown by black players upon a picnic day.
 She sang and danced on gracefully and calm,
 The light gauze hanging loose about her form;
 To me she seemed a proudly-swaying palm
 Grown lovelier for passing through a storm.
 Upon her swarthy neck black shiny curls
 Luxuriant fell; and tossing coins in praise,
 The wine-flushed, bold-eyed boys, and even the girls,
 Devoured her shape with eager, passionate gaze;
 But looking at her falsely-smiling face,
 I knew her self was not in that strange place.

1917년에 쓰인 이 시는 Harlem의 실상을 새로운 시각과 진솔하고 강렬한 어휘로 詩化하여 충격적인 반응을 일으킨 문제작으로서 흑인 정체성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작품이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마도 마지막 두 줄에 의미있게 농축된, Harlem의 술집에서 춤을 추는 한 흑인 무희의 모습을 통하여 형상화되고 있는 흑인의 삶의 공허감(“falsely smiling face”)과 소외감(“strange place”)일 것이다. 그 공허감과 소외감은 흑인무희의 풍요로운 아름다움 그리고 주위의 흥청대는 분위기와 대조되어 더욱 강한 시적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이 절박한 시에는 그 이상의 많은 중요한 것들, 예컨대 술과 노래와 젊음의 방탕이 넘치는 Harlem 술집의 생생한 풍경, 본능적인 섹스와 원시성의 활력, 우아하고(“gracefully”) 풍요로운(luxuriant) 흑인의 아름다움, “폭풍을 견뎌냄으로 더욱 아름다워진/자랑스레 너울대는 야자수”의 이미지에 담긴, Africa에의 향수와 섞인 흑인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 등이 담겨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요소가 이 시를 Harlem Renaissance의 도래를 알리는 대표적인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게 만든 이유일 것이다.

한편 “If We Must Die”의 토운은 “Harlem Dancer”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If we must die, let it not be like hogs
 Hunted and penned in an inglorious spot,
 While round us bark the mad and hungry dogs,
 Making their mock at our accursed lot.
 If we must die—O, let us nobly die,
 So that our precious blood may not be shed
 In vain; then even the monsters we defy
 Shall be constrained to honor us though dead!
 O, Kinsmen! we must meet the common foe!
 Though far outnumbered, let us show us brave,
 And for their thousand blows deal one deathblow!
 What though before us lies the open grave?
 Like men we'll face the murderous, cowardly pack,
 Pressed to the wall, dying, but fighting back!

2차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영국군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읊은 시가 바로 이 시였을만큼 이 시는 단호하고 전투적인 어조로 인종적 편견과 박해에 대한 McKay의 분노를 강렬히 표현하고 있다. 그 박해의 절박함은 「죽음」을 나타내는 어휘가 14행의 짧은 시에서 무려 아홉번이나 반복됨으로써 절박하게 강조된다. 그러나 McKay가 이 시에서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잔혹한(“murderous”) 백인들의 박해나 치욕스럽고(“inglorious”) 저주받은(“accursed”) 흑인의 운명보다는 가해자인 백인의 비겁하고(“cowardly”) 짐승처럼 야비한(“mad and hungry dogs”) 모습과 대조되는, 비록 피해자이긴 하지만 인간다운(“Like men”) 위엄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야 할 용감한(“brave”) 흑인의 모습이다. 이 시의 가장 훌륭한 문학적 성취는 바로 흑인과 백인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顛倒의 아이러니일 것이다. McKay가 생각하는 이러한 용기와 자존심은 그로 하여금 부당하고 잔혹한 백인들의 박해에 분노하면서도 때로 그 박해를 가하는 미국사회를 아픈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한다. “America”같은 시는 McKay의 이러한 이중적 비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Although she feeds me bread of bitterness,
 And sinks into my throat her tiger's tooth,
 Stealing my breath of life, I will confess
 I love this cultured hell that tests my youth!
 Her vigor flows like tides into my blood,
 Giving me strength against her hate.
 Her bigness sweeps my being like a flood.
 Yet as a rebel fronts a king in state,
 I stand within her walls with not a shred
 Of terror, malice, not a word of jeer.

Darkly I gaze into the days ahead,
 And see her might and granite wonders there,
 Beneath the touch of Time's unerring hand,
 Like priceless treasures sinking in the sand.

「고통의 쓴 빵」과 「호랑이의 이빨」과 「문명화된 지옥」으로 형상화되는 미국사회의 인종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을 거역하는 반역자」처럼 미국사회에 저항하면서도, 시인은 그 지옥인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활기」에서 그 증오에 대항할 「힘」을 얻으며, 그를 휩쓰는 거대한 파도같은 미국의 무자비한 힘 속에서 「귀중한 보물」의 가능성을 보아 내기도 한다.

Mckay의 시에 암시된 이러한 이중적인 감정 혹은 태도를 우리는 Countée Cullen(1903~1946)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목사인 양부로부터 정치사회적 개혁주의와 동시에 종교적 보수주의라는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정신적 영향을 받으며 자란 Cullen의 성장 배경¹⁶⁾ 역시 그의 이러한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nigger'라는 말이 남긴 아물지 않는 상처의 아픔을 이야기한 "Incident"나 흑인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Song of Praise", 그리고 아프리카 근원과 흑인 정체성을 탐색하는 "Heritage" 등에서 볼 수 있듯이 Cullen은 인종 문제에 집요한 관심을 보이며 때로 인종 박해의 부당함을 강렬하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절제된 감정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 "Tableau" 같은 작품에서 우리는 Cullen의 그러한 이중적 태도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Locked arm in arm they cross the way,
 The black boy and the white,
 The golden splendor of the day
 The sable pride of night.

From lowered blinds the dark folk stare
 And here the fair folk talk,
 Indignant that these two should dare
 In unison to walk.

Oblivious to look and word
 They pass, and see no wonder
 That lightening brilliant as a sword
 Should blaze the path of thunder.

Cullen이 바라는 미국사회는 「낮의 황금빛 영광」인 백인 소년과 「밤의 검은 빛 자랑」인 흑인 소년이 흑인 어른들의 의아한 눈길이나 백인 어른들의 분노의 투덜댐에 아랑곳없이 서로 팔장을 끼고 「밝은 번개불」이 환하게 퍼뜩 밝히는 대로를 가로질러가는, 마치 꿈 속

16) Roger Whitlow, *Black American Literature* (Totowa: Rowman and Allanheld, 1973), p. 83 참조.

의 한쪽 그림처럼 아름답게 균형잡힌 그런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Cullen의 많은 작품에서 이종의 감정은 대체로 때로는 냉소적이고 때로는 회의적인 아이러니의 형태로 표출되며 종교적인 함축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For a Lady I Know”와 “She of the Dancing Feet Sings”는 그 좋은 예들이다.

“For a Lady I Know”

She even thinks that up in heaven
Her class lies late and snores,
While poor black cherubs rise at seven
To do celestial chores.

“She of the Dancing Feet Sings”

And what would I do in heaven, pray,
Me with my dancing feet,
And limbs like apple boughs that sway
When the gusty rain winds beat?

And how would I thrive in a perfect place
Where dancing would be sin,
With not a man to love my face,
Nor an arm to hold me in?

The seraphs and the cherubim
Would be too proud to bend
to sing the faery tunes that brim
My heart from end to end.

The wistful angels down in hell
Will smile to see my face,
And understand, because they fell
From that all-perfect place.

천국에서까지도 흑백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백인의 오만한 믿음에 대한 “For a Lady I Know”의 풍자가 다소 냉소적이라면 “She of the Dancing Feet Sings”의 아이러니는 다분히 회의적이다. 전자가 인종문제에 대한 이승과는 다른 천국의 공정함을 믿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는 흑인의 이승의 삶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의 경직함에 질은 회의를 느낀다. 이 후자의 시는 시인의 활기찬 춤을 죄악시하고 그의 검은 얼굴과 아름다운 음악(“faery tunes”)을 그 비천함을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그를 무기력과 행동불능 상태(“what would I do”)에 빠지게 하는, 「완벽한 세계」인 천국의 천사들과, 시인의 검은 얼굴을 미소로 맞으며 그의 삶을 이해해 줄, 타락하여 그 「완벽한 세계」로부터 떨어진 「지옥」의 천사

들과의 대조를 통하여 자조와 회의가 뒤섞인 강렬한 아이러니를 전한다.

흑인 정체성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이러한 회의는 흑인의 삶에 한계를 지우면서도 흑인으로 하여금 시인이 되어 「노래」하도록 허용한 불가사의한 신의 섭리를 묻는 “Yet Do I Marvel” 같은 시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Cullen은 일생동안 흑인의 정체성과 예술과 종교 문제의 복합적인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Cullen의 곤경은 바로 DuBois가 묘사한 바의 흑인의 이중성¹⁷⁾, 즉 “his twoness,—an American, a Negro; two souls, two thoughts, two unreconciled striving; two warring ideals in one dark body”의 곤경을 例示한 것이라는 Margaret Perry의 해석은¹⁸⁾ 매우 적절하다. 후에 Langston Hughes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는 “I want to be a poet—not a Negro poet.”라는 Cullen의 비장한 고백은¹⁹⁾ 예술가와 흑인이라는 이중 정체성의 갈등 속에서의 그의 고뇌와 방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예술과 인종문제, 예술가와 흑인의 정체성의 이러한 갈등의 문제는 아마도 Jean Toomer (1894~1967)의 경우에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된다. Toomer가 Louisiana 부지사인 Pinchback의 손자로 백인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흰 피부색을 가진 혼혈이었으며 줄곧 모호했던 그의 인종적 정체성이 그의 감각스런 작품 활동의 중단과 함께 미궁으로 빠져버린 사실과, 그가 최초의 진정한 흑인 예술가로 격찬을 받을만큼 그의 예술적 기교가 뛰어났고 또 그가 문학의 예술적 기능을 중시했다는 사실은, 예술과 인종 문제의 갈등이 그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을가를 쉽게 짐작케해 준다.

Toomer는 *Cane*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Alain Locke와 친교를 맺고 있었으며 흑인 여류시인인 Georgia Douglas Johnson의 집에서 흑인 작가들과의 문학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이미 새로운 인종적 개념, 즉 백인종이나 흑인종을 초월한 「미국인종」(American race)이라는 새로운 인종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Toomer는 동료 흑인작가들에게 이 새로운 인종적 개념을 이해시키려했고 희곡 *Nathalie Mann*이나 “The First America”같은 시를 통해서 그의 새로운 인종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George B. Hutchinson의 지적처럼 백인만이 아니라 흑인들도 「인종적 순수성」(racial integrity)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던 바로 그 시기에 Toomer가 작가로서의 성숙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Toomer 생애의 가장 큰 아이러니²¹⁾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Toomer는 흑인 동료 작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을만한 이러한 인종 의식을 지니고 글을 썼고 *Cane* 이후 사실

17) 註 12 참조.

18) Margaret Perry, *Silence to the Drums: A Survey of the Literature of the Harlem Renaissance* (London: Greenwood Press, 1976), p. 57.

19) Michael W. Peplow and Arthur P. Davis, eds., p. 471.

20) George B. Hutchinson, “Jean Toomer and the New Negroes of Washington,” *American Literature*, Vol. 63, No. 4 (December 1991), pp. 683-692.

21) *Ibid.*, p. 687.

상 작품 활동을 중단한 후에는 어디론가 잠적하다싶이하여 백인으로, 좀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미국인」으로 살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Toomer가 흑인의 인종적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Cullen처럼 흑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미국인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한 예술가로서 작품을 쓰고자했을 따름이다. 실제로 그는 흑인의 삶을 소재로 매우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성공의 결실이 1921년 조상의 고향인 Georgia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그가 깊은 감명을 받은 흑인의 삶의 정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Cane*(1923)이라는 작품집이다.

*Cane*은 시, 스케치, 단편소설, 심지어 희곡까지 문학의 모든 장르에 걸친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하여 흑인의 삶의 여러 측면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는 독특한 작품이다. 그러나 그는 인종적 문제의식을 고취하거나 인종 박해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삶의 진실을 깊고 풍부하게 전달하는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문학적 소재이기 때문에 흑인의 삶을 그렸던 것이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의 삶, 그 기쁨과 슬픔, 바램과 좌절, 그 상처의 고통, 무엇보다도 상실, 소외, 죽음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인의 삶인 까닭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Cane*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비록 흑인의 삶을 통해서이지만 소위 「길 잃은 세대」문학의 주제들, 예컨대 현대인의 정신적 죽음, 죽음에의 집착, 정체성의 상실, 부르짖 가치의 거부 등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²²⁾

그러나 *Cane*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아마도 그 예술적 실험성에 있을 것이다. McKay나 Cullen이 현대성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현 기법에 있어서는 매우 전통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Toomer는 주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표현 기교적인 측면에서 매우 현대적이었던 것이다. *Cane*에 수록된 작품들의 형식적 다양함이 보여주는 표현 양식 자체에 있어서의 실험성, 엄격한 심미적 객관성, 풍부하고 mystic한 상징적 이미지의 구사, 언어의 질제와 함축 그리고 그 서정적 음악성 등은 모더니스트로서의 그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Song of the Son”의 풍부한 이미지와 서정적 음악성은 흑인의 삶의 민속적 특성을 창출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시의 마지막 두 연의 음미만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효과를 쉽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O Negro slaves, dark purple ripened plums,
Squeezed, and bursting in the pine-wood air,
Passing, before they strip the old tree bare
One plum was saved for me, one seed becomes

An everlasting song, a singing tree,
Caroling softly souls of slavery,
What they were, and what they are to me,
Caroling softly souls of slavery.

22) Margaret Perry, p. 33 참조.

한편 “Conversion”이나 “Portrait in Georgia” 같은 시는 Toomer의 표현 기법상의 실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Conversion”

African Guardian of Souls,
 Drunk with rum,
 Feasting on a strange cassava,
 Yielding to new words and a weak palabra
 Of a white-faced sardonic god—
 Grins, cries
 Amen,
 Shouts hosanna.

“Portrait in Georgia”

Hair—braided chestnut,
 coiled like a lyncher’s rope,
 Eyes—fagots,
 Lips—old scars, or the first red blisters,
 Breath—the last sweet scent of cane,
 And her slim body, white as the ash of black flesh after flame.

두 작품 모두에서 우리는 고도로 절제된 언어, 새로운 현대적 어휘, 신선한 파격적 이미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질게 융해된 흑인의 삶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백인 문명과 종교에 동화되어 자신의 근원과 정체성을 잃어가는 흑인의 모습을 詩化한 “Conversion”은 Toomer의 여러가지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농축되어 결합된 Toomer 문학의 정수를 담은 원액같은 작품이다. Toomer 문학의 한 중요한 성취는 바로 이러한, 흑인의 민속적 삶의 소재와 예술적 기교와의 훌륭한 결합이다. 우리는 이러한 바람직한 결합을 Langston Hughes (1902~1967)의 문학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새로운 표현 기법에 대한 관심과 그 실험성 및 독창성에 있어서 Hughes와 Toomer는 여러가지 점에서, 예컨대 새로운 운문 형식, 새로운 詩語, 언어의 음악성 등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공통되는 총론 안에 담긴 각론에서 Hughes와 Toomer는 또 여러가지 점에서 서로 대조를 이룬다. Toomer의 운문 형식이 매우 절제된 것인데 반하여 Hughes의 그것은 자유분방하며, Toomer의 시어가 정련되고 다소 현학적인 것이라면 Hughes의 그것은 관용적이고 구어적이며, Toomer의 음악성이 단아하고 서정적이라면 Hughes의 그것은 보다 본능적이고 대중적이다. Hughes의 시에서 우리가 jazz나 blues 같은 친근한 음악적 리듬에 자주 접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러니까 Toomer가 서구적 모더니즘의 전통에 보다 기울어 있다면 Hughes는 미국적 토속적 전통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Hughes의

자유로운 운문형식은 Walt Whitman, Vachel Lindsay, Carl Sandburg로 이어져온 미국의 「자유시」(free verse)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흑인의 소재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두 사람은 대조적이다. Toomer가 흑인의 삶의 고뇌와 페이스스같은 정신적 특성에 차분히 주목한다면 Hughes는 흑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 부산히 눈길을 돌린다. 미국 사회의 인종적 편견에 대한 항변, 흑인의 삶의 애환, 흑인의 자긍심, 아프리카 근원예의 탐색, Harlem의 삶 등 Hughes의 시나 소설이 다루는 주제와 내용은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주제를 다루든 우리는 Hughes의 작품에서 항상 두가지의 공통된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는 삶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忍苦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보통 사람들의 경험을 일상적 언어로 쉽게 전달하는 그 친근한 대중성이다. Margaret Perry는 삶의 고뇌를 인고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optimistic stoicism'이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요약해 설명한다.²³⁾ 사실 Hughes의 작품에는 표면적인 분방함 밑에 항상 어떤 절제된 stoicism의 정신이 깔려있고 그러한 stoicism이 전하는 고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담담한 optimism이 담겨 있다. 이 'optimistic stoicism' 혹은 'stoic optimism'은 바로 흑인의 삶의 역사요 그 역사를 지탱해온 흑인 정신의 정수이다. 이 정수를 흑인의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포착하여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데에 예술가로서의 Hughes의 탁월함이 있다. "Mother to Son" 같은 시는 Hughes의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Well, son, I'll tell you:
 Life for me ain't been no crystal stair.
 It's had tacks in it,
 And splinters,
 And boards torn up,
 And places with no carpet on the floor—
 Bare.
 But all the time
 I've been a-climbin' on,
 And reachin' landin's,
 And turnin' corners,
 And sometimes goin' in the dark
 Where there ain't been no light.
 So boy, don't you turn back.
 Don't you set down on the steps
 'Cause you finds it's kinder hard.
 Don't you fall now—
 For I've still goin', honey,

23) *Ibid.*, p. 46.

I'se still climbin',
And life for me ain't been no crystal stair.

Harlem의 술집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Harlem Night Club”같은 시에서도 이러한 삶의 긍정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이 시의 활기 있는 음악적 리듬, 도시 흑인의 감성의 정확한 포착에 의하여만 가능한 그런 생기있는 리듬에 매우 적절히 실려 있다. 같은 Harlem 술집의 풍경을 다루고 있는 McKay의 “The Harlem Dancer”와 이 시의 차이는 Hughes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Sleek black boys in a cabaret.
Jazz-band, jazz-band,—
Play, plAY, PLAY!
Tomorrow.... who knows?
Dance today!

White girls' eyes
Call gay black boys.
Black boys' lips
Grin jungle joys.

Dark brown girls
In blond men's arms,
Jazz-band, jazz-band,—
Sing Eve's charms!

White ones, brown ones,
What do you know
About tomorrow
Where all paths go?

Jazz-boys, jazz-boys,—
Play, plAY, PLAY!
Tomorrow... is darkness.
Joy today!

이러한 삶의 긍정의 태도는 이 시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그리고 “I too”의 경우에 더 분명히 드러나듯이, 미국사회에서의 흑인의 위상과 관련한 Hughes의 Americanism의 태도에도 직결된다.

I, too, sing America.
I am the darker brother.
They send me to eat in the kitchen
When company comes.
But I laugh,

And eat well,
And grow strong.

To-morrow
I'll sit at the table
When company comes
Nobody'll dare
Say to me,
"Eat in the kitchen"
Then.

Besides, they'll see how beautiful I am
And be ashamed,—

I, too, am America.

'optimistic stoicism'을 진하게 깔고 있는 이 시는 백인의 인종적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미국인으로서의 당당한 흑인의 모습과 흑인의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잘 보여준다. 흑인이며 동시에 미국인인 미국흑인의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은 아프리카의 뿌리와 미국의 역사를 강의 이미지로 연결시키고 있는 'Negro Speaks of Rivers'에서는 강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의 상징적 결합을 통하여 원초적인 하나됨에 이른다.

I've known rivers...

I've known rivers ancient as the world and older than the flow of human blood in human veins.

My soul has grown deep like the rivers.

I bathed in the Euphrates when dawns were young,
I built my hut near the Congo and it lulled me to sleep,
I looked upon the Nile and raised the pyramids above it.

I heard the singing of the Mississippi when
Abe Lincoln went down to New Orleans,
And I've seen its muddy bosom turn all golden in the sunset.

I've known rivers:

Ancient, dusky rivers,

My soul has grown deep like the rivers.

위에서 몇몇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Hughes의 시는 대체로 사물이나 경험에 대한 어떤 조화, 균형감, 긍정적 깨달음을 전달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공은 그가 다루는 소재의 친숙함과 무엇보다도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의 친근감에 기인한다. 때로 그의 시는 너무 단순하고 쉽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고도의 숙련된 기교가 빚어내는 그런 단순함이다. 예를 들어 단순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의 언어는 흑인들의 일상적 어휘와 흑인들

의 대화의 소리와 흑인 음악의 리듬을 적절히 혼합하고 그 함량을 조정하여 조제해낸 언어인 것이다. Hughes는 한 인터뷰에서 그가 글을 쓰는 주요 목표는 『흑인의 삶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여러 문제들과 흑인의 삶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논평하는 것』²⁴⁾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자신의 한 논문에서는 시와 인생 사이에 「언어의 장벽」(language gulf)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²⁵⁾ Hughes에게 있어서 시란 「고급예술」(high art)이 아니라 『흑인의 특징적인 삶을 리듬 속에 증류해낸 것』²⁶⁾이었다. Cullen이나 Toomer에게 심각한 문제였던 예술가와 흑인 정체성 사이의 갈등을 우리는 Hughes에게서 전혀 느낄 수 없다. 그것은 Huggins의 정확한 지적처럼 Hughes는 예술을 「심각한 고급 문화」(serious high culture)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흑인—예술가 딜레마」(Negro-artist dilemma)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²⁷⁾ 때문이다. Hughes는 또한 예술을 대중문화로 인식함으로써 많은 HR 작가들과는 달리 이른바 ‘cultural elitism’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흑인 정체성의 새로운 인식과 발견, 흑인의 일상적 삶과 예술과의 성공적 결합, 다양하고 왕성하고 지속적인 그의 풍부한 작품 활동, 이 모든 것은 Hughes를 HR을 대표하는 진정한 흑인 민족시인으로 평가받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Hughes를 정점으로 한 HR의 의의와 그에 대한 평가의 접점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려한다.

V

HR가 미국 흑인문학의 역사에 현대성을 부여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나 작가들은 HR가 하나의 문학 운동으로서 실패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HR에 대한 비판은 당대와 1920년대 직후에 이미 시작되어서 DuBois는 HR의 작가들이 흑인의 천박한 삶을 예찬함으로써 흑인 대중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고, George Schuyler 같은 작가는 그러한 문학운동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당시의 흑인작가들의 작품은 백인과 유럽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했으며²⁸⁾, Sterling Brown은 HR 문학이 당시 Harlem의 현실인 실업자 행렬이라든가 과밀학교, 소년범죄 등을 외면함으로써 일상적 삶의 투쟁과 갈등의 드라마를 결하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²⁹⁾

흑인문학을 연구하는 오늘날의 학자들도 대부분 HR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예컨대 David Littlejohn은 HR은 실체가 없는 일종의 유행으로서 많은 작가들이 「작위적 흥

24) *Phylon* 7 (4th Quarter, 1950), p. 307.

25) Langston Hughes, "Ten Ways to Use Poetry in Teaching," *CLA Journal* 10 (1968), p. 275.

26) Perry, p. 49.

27) Huggins, p. 227.

28) Roger Whitlow, p. 97.

29) Sterling Brown, *The Negro in American Fiction* (New York: Atheneum, 1969), p. 149.

분상태](artificial excitement)와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흑인 브르좌독자들에 영합하는 상업적 작품을 써내는데 열중했으며, 문학적 자세에 있어서 그들은 이미 그들이 그리는 세계와 그들 자신과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고 혹평한다.³⁰⁾ Edward Margolies 역시 HR 작가들이 Jazz Age의 독자들에게 영합하여 흑인의 춤과 노래 쾌락을 강조하는 이류 작품을 양산함으로써 그들의 작품은 흑인 대중의 경험에 관한 진실한 기록이 되지 못하고, 선배 작가들의 점잖음 고상함 계급적 속물 근성에 반발하여 오히려 자신들을 왜곡시켰음을 지적하고 있다.³¹⁾ Huggins와 David Levering Lewis의 경우 HR의 실패의 원인을 전혀 반대로 진단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Huggins는 그의 *Harlem Renaissance*(1971)를 통해서 HR의 실패가 인종적 정체성을 너무 의식한 「인종적 편향성」(racial provinciality)에 기인한다고 진단하는 반면 Lewis는 그의 저서 *When Harlem Was in Vogue*(1981)를 통하여 HR의 실패의 원인은 오히려 인종문제와 흑인이 처한 어려운 현실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예술의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흑인 지식인들(talented tenth)의 문화적 엘리트즘과 동화주의에의 믿음에 있다고 주장한다.³²⁾

그러나 HR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그 장점과 의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Littlejohn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있듯이 20여명의 흑인 작가가 짧은 기간 동안에 문학적 성과와 독립에 이른 점, 그들이 느끼고 표현한 인종적 자긍심의 진정성과 영속성, 그리고 Langston Hughes라는 걸출한 작가를 배출한 점을 그 의의로 꼽는다.³³⁾ Margolies 역시 HR의 「무력한 사람들」(little people)에 대한 강조는 1930년대의 더 암울한 자연주의 문학의, Harlem의 도시 배경은 더 사실적인 도시의 삶의 기록의, 남부 흑인사회에 대한 묘사는 흑인 농민의 삶의 보다 사실적인 기술의 모태가 되어 미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그 의의로 지적한다.³⁴⁾ 한편 Houston A. Baker, Jr.는 HR이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민족적 자기 정의(self definition)의 성공적 성취와 새로운 현대적 변화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것, 특히 'folk'가 아니라 'race'와 'nation'의 문제, 즉 민족문화(national culture)를 일깨운 것을 그 중요한 현대적 의의로 평가한다.³⁵⁾ Baker는 HR의 모더니즘적 성격을 'mastery of form'과 'deformation of mastery'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파악하여 Booker T. Washington과 Charles W. Chesnut에서 이어져 오는 'mastery of form'의 전술이 Cullen과 McKay에 의해서, 그리고 DuBois에서 비롯된 'deformation of mastery'의 전술은 Toomer에 의하여 각각 보완되고 있

30) David Littlejohn, pp. 45-46.

31) Edward Margolies, *Native Sons: A Critical Study of Twentieth-Century Negro American Authors*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 1968), p. 31.

32) Houston A. Baker, Jr., *Modernism and the Harlem Renaiss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 10-12 참조.

33) Littlejohn, p. 39.

34) Edward Margolies, p. 35.

35) Houston A. Baker, Jr., p. 73.

다고 지적하며³⁶⁾ 이 양자의 조화의 역학이 흑인문학의 모더니즘의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Baker는 HR가 「르네상시즘」, 즉 20세기 초부터 흑인 지식인 사이에서 싹터온 「민족주의적 참여정신」(spirit of nationalistic engagement)에 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현대성을 획득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르네상시즘」의 개념은 HR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그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 하나의 생산적 전술 전략 체계라고 강조한다.³⁷⁾

Baker의 위 주장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HR은 비록 하나의 문학 운동으로 실패했다하더라도 그 교훈적 의의와 유산, 특히 인종적 자긍심, 강한 정체의식, 아프리카 근원예의 탐색 등의 그 민족주의적 측면은 지금도 흑인문학과 흑인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인 전통으로 살아있다.

36) *Ibid.*, pp. 85-87.

37) *Ibid.*, p. 91.